

코로나19 시기 시설보호청소년의 일상이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의 매개효과

한지수*·김재희**·이지혜***·이효정****·김현경*****

I 알기 쉬운 개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동안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과 달리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특히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코로나19 시기 동안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인 생활지도원의 지지가 부족하였고, 외출 시간과 신체활동 시간이 크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경험한 일상의 변화와 심리적 어려움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때,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과 달리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가지는 특징적인 친구 관계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이들의 시설 외부와 시설 내부 친구 관계의 영향도 고려하였다. 결국,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코로나19 시기 느낀 소외감에 생활지도원의 지지, 외출 시간의 만족도, 신체활동 시간의 만족도, 시설 내·외부 친구 관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연구를 통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시설에서 생활한 청소년이 경험한 심리적 소외감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후 코로나19와 비슷한 위기 상황에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monghae21@naver.com

** 연세대학교 미래도시와사회 연구원 연구교수,
jaeheekim@yonsei.ac.kr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인간생애와혁신적디자인 박사수료,
jh0718@yonsei.ac.kr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인간생애와혁신적디자인 조교수,
hyojunglee@yonsei.ac.kr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인간생애와혁신적디자인 교수,
교신저자, hyoungkim@yonsei.ac.kr

투 고 일 / 2023. 6. 5.

심 사 일 / 2023. 8. 23.

심사완료일 / 2023. 8. 24.

I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시설보호청소년이 겪은 환경 변화와 심리적 어려움 간의 매커니즘을 살펴보기 위해 시설보호청소년의 일상 경험에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를 매개로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서울특별시 소재 아동양육시설을 전수조사한 자료의 일부를 활용하였으며, 31개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시설보호청소년 37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호청소년의 일상으로 생활지도원의 지지, 외출 시간, 신체활동 시간에 대한 시설보호청소년의 만족도를 포함하였고, 친구관계 변화는 시설 내·외부 친구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종속 변인인 소외감은 잠재변수로서 Dean(1961)이 개발한 소외감 척도(Dean's Alienation Scale)를 번안·수정·보완한 척도를 통해 소외감의 하위 변인인 무력감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시설보호청소년의 성별, 현재 심리치료 여부, 코로나19 시기 시설별 외출 금지 기간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SPSS 26.0과 Mplus 8.6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보호청소년이 인식한 생활지도원의 지지와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의 변화가 긍정적일수록 시설보호청소년의 소외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활지도원의 지지와 신체활동 시간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시설 내부 친구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를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소외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출 시간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시설 외부 친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소외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 시기 중 경험한 신체활동 시간과 외출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시설 외부, 내부 친구관계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경험 이후 겪은 시설보호청소년의 심리적 소외감을 이해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19 시기의 결손회복이나 코로나19와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시설보호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관계 중심의 개입과 안정된 일상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시설보호청소년의 친밀한 사회적 관계 특성상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를 독립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여, 시설보호청소년에 대한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시설보호청소년, 코로나19, 소외감, 시설 내부 친구관계, 시설 외부 친구관계

I. 서 론

1. 코로나19 시기의 시설보호청소년의 소외감

2020년 3월부터 지속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고, 특히 민감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신체활동과 사회적 교류가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지침으로 인해 제한된 일상은 우울, 불안, 사회적 고립, 부적응 행동 및 스트레스의 증가와 같은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Loades et al., 2020).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이러한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취약 계층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UN Sustainable Development Group, 2020),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계층의 청소년들의 경우 이들이 경험한 일상생활 변화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김형모, 2020). 특히, 부모의 학대,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원가족과 분리되어 아동양육시설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보호청소년은 일반 가정과는 달리 다양한 연령의 많은 또래와 함께 생활하여 성인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기회가 부족한 환경에서 성장한다(유호석, 2018). 이러한 양육환경의 특성상 시설보호청소년들은 전면 휴교, 외출 제한 등으로 가정의 돌봄과 교육 부담이 증가한 코로나19 시기에 반응적인 돌봄 부족과 사회적 관계 변화를 경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엄지연, 홍은정, 2020; 임성은, 2020).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기존 연구에서도 꾸준히 주목해 온 시설보호청소년의 소외감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문진명, 2000; Hall-Lande, Eisenberg, Christenson, & Neumark-Sztainer, 2007). 소외감(alienation)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구조적인 특징과 함께 개인의 경험으로 보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을 적용하여, 소외감을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 타인과 자신 사이의 긍정적 상호의존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강완숙, 2000). 전통적으로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소외감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하위요인으로 소외감을 측정하고 분석해왔다. 대표적으로 Dean(1961)은 Seeman(1959)의 개념을 바탕으로 소외감을 3가지 하위요인(무력감, 사회적 고립감, 규범상실감)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규범상실감은 청소년의 소외를 다차원적으로 검증할 때 높은 관련성이 없다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Lacourse, Villeneuve, & Claes, 2003), 본 연구에서는 소외감을 측정하기 위해 코로나19 시기의 경험과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무력감과 사회적 고립감에 중점을 두었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무력감, 대인기피증,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으며(박정연, 2022), 코로나19 감염 12주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코로나19증후군(long COVID)의 증상으로 무력감을 경험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윤정 외, 2022). 한편, 사회적 고립감은 코로나19 시기 활성화된 비대면 접촉과 관련이 있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또는 온라인을 활용하는 일상이 자리잡았는데, 이는 온라인으로는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지만 실제로는 혼자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생활하는 고립적 상황을 야기하였다(손영준, 허만섭,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시설보호청소년의 소외감을 측정하기 위해 무력감과 사회적 고립감을 사용하였으며, 무력감은 개인에게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과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인지하는 상태로, 사회적 고립감은 개인이 사회적으로 자신이 거부되어 있고 수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낮은 상황으로 정의하였다(강완숙, 2000; Seeman, 1959).

아동양육시설은 중장기 생활 중심의 보호시설로 아동의 보호, 양육, 교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수의 아동과 청소년이 공동으로 생활한다(임성은, 2020). 자원이 제한된 환경 내에서 생활하는 시설보호청소년은 일반 가정 청소년과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심리·사회적 욕구 충족을 지원해 줄 자원 부족을 경험하게 되며, 때로는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타인을 배척하기도 하면서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문진명, 2000; 홍성호, 2005). 또한, 시설보호청소년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또래 간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본인에게서 찾는 특성이 있어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대인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문진명, 2000; Farineau, Wojciak, & McWey, 2013). 이는 시설보호청소년의 자립 과정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듯 정서적 취약함을 가진 시설보호청소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사회적 단절과 제한된 대면 접촉을 경험하며 소외감을 더욱 강하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의 시설보호청소년 소외감에 주목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소외감의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시기에 시설보호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소수의 시설보호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아동양육시설은 시설별로 또는 지역별로 운영 방식과 재정 규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는 시설보호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얻기 어렵다(장혜림, 김시아, 김선숙, 김희주, 정정호, 2021). 따라서, 소외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영향요인에 의해 극대화되는지, 그 원인과 경로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설의 시설보호청소년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시설보호청소년이 경험한 소외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 중에서 크게 시설 환경의 규제 하에 변화된 일상 경험과 대표적인 대인관계인 또래 경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경험한 대표적인 일상 경험인 생활지도원의 지지,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지침으로 인한 외출 시간, 외부 활동 기회 감소로 인한 신체활동 시간 변화에 대한 만족도가 시설보호청소년의 소외감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시설보호청소년의 일상 경험과 소외감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며 아동의 보육, 생활지도, 자립지원, 상담 등을 담당하는 생활지도원은 시설보호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지도원과의 애착 관계가 시설보호청소년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과 긍정적 자아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선옥, 2006).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응지침으로 인해 시설보호청소년의 외출·외박·면회가 금지되었고, 외부 자원봉사자나 멘토에 의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인턴십 수료, 원가족과의 만남이나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의 참여가 제한되었으며, 이는 시설보호청소년의 일상 경험의 변화로 이어졌다(조해람, 김혜리, 민서영, 2021). 이와 같은 시설과 지역사회 간의 단절은 시설 내 생활지도원이 감염병 예방과 관리와 더불어, 전반적인 시설보호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게 됨을 의미한다(주해란, 김한나, 이예진, 황소연, 안태구, 2022). 이에 생활지도원이 수행해야 하는 돌봄 관련 업무가 급격히 증대하고, 온라인 전환 등의 추가적인 업무가 배정되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중 생활지도원의 심리적·신체적 스트레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재희, 심미승, 2022).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의 주양육자는 생활지도원이기 때문에, 주양육자의 심리적 어려움이 아동의 정서발달과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듯 생활지도원의 심리적 소진은 돌봄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시설보호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이나 대인관계 능력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안은미, 안영미, 정익중, 2021; 주해란 외, 2022).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있어 특히 양육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Hall-Lande et al., 2007). 생활지도원이 시설보호청소년의 생활 전반에 개입하며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스트레스가 높은 코로나19 팬데믹 환경에서 생활지도원의 지지가 시설보호청소년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김재희, 심미승, 2022; 김희용, 진재찬, 유서구, 2022; 안은미 외, 2021).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제한은 시설보호청소년의 시설 내 고립을 야기하여 소외감 증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장혜림 외, 2021). 코로나19 시기 아동양육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이 코로나19 취약 시설로 분류되면서 아동양육시설 입소자의 외출이 전면 금지되었다. 서울 소재의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보호아동의 76.7%가 코로나19 시기 1주일 동안 3시간 미만의 외출 시간을 보고하였으며, 이조차도 대부분 마트, 미용실, 학원이 목적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현경, 김재희, 최지은, 이지혜, 2021). 이러한 외출 제한이 특히 우려되는 이유는 외출이 자유롭게 가능했던 일반 가정 청소년과 달리 상대적으로 외출 시간이 감소한 시설보호청소년이 자신이 열등하고 불리한 위치에 있음

을 지각하여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경험하기 쉽기 때문이다(오세진, 2021; Hall-Lande et al., 2007). 실제로 코로나19 시기에 외출 시간이 감소하고 격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외감을 포함한 정신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Pancani, Marinucci, Aureli, & Riva, 2021), 외출 제한이 시설보호청소년의 소외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보호청소년은 외출이 제한되던 시기 등교하지 않는 날에 시설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일정이나 프로그램의 부족을 경험하였다(장혜림 외, 2021). 즉, 좁은 시설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발생하는 친구들 간의 갈등(장혜림 외, 2021)과 외부 친구와의 만남 감소(김현경 외, 2021)는 시설보호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시설보호청소년이 경험한 신체활동 시간의 감소도 소외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체활동은 개인의 심리적 행복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에도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일상 행동 양식이다(Ganesan et al., 2021). 실제로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수준은 친구의 신체활동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신체활동과 또래 사회적 관계는 서로 연관이 있으며, 활발한 신체활동이 청소년의 소외감 감소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Voorhees et al., 2005).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심각한 수준의 신체활동 감소를 경험하였다(Moore et al., 2020).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의 청소년통계(2021)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이나 야외 신체활동을 했다고 응답한 국내 청소년의 비율은 39.1%에 불과하였고,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비교했을 때 보호대상아동 및 청소년 신체활동 시간이 많이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시간에 대한 만족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현경 외, 2021). 외부 활동 제한과 외부 인력 제한으로 인해 프로그램 진행이 부진하고 신체활동 수준도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설보호아동 및 청소년의 약 37%가 1-2시간 미만의 신체활동 시간을 보였으며, 주 6시간 이상의 권장 신체활동을 수행한 비율은 12%에 불과하였다(김현경 외, 2021; 장혜림 외, 2021).

이렇듯,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중 시설보호청소년은 생활지도원의 지지, 외출 시간과 신체활동 시간 등의 일상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는 시설보호청소년의 고립된 소외감을 경험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의 경험에 대해서 모든 시설보호청소년이 동일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일상 변화를 개인이 어떻게 인지하는지가 소외감과 같은 정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Lazarus,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호청소년이 주로 경험한 일상생활로 생활지도원 지지, 외출시간과 신체활동 시간에 대한 만족도에 중점을 두어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평가라는 질적 차원의 경험이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3. 시설보호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소외감

한편,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 시설보호청소년의 친구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시설보호청소년의 일상과 더불어 이들의 친구관계도 많은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시설보호청소년은 시설 입소로 원가족과 물리적·정서적 거리감이 형성되어 원가족과의 관계는 약화되는 반면,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의 비중이 커지기에, 이들의 발달에 또래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Hedin, Höjer, & Brunnberg, 2011).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코로나19 시기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외출, 외박, 면회 금지 등의 조치가 시행되면서 시설에 고립된 시설보호청소년이 경험한 일상 변화는 시설 내부에 함께 사는 친구들과 시설 외부 친구들과 보내는 기회에 차이를 유발하였다(김현경 외, 2021). 이는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가 서로 다른 영향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시설의 내부와 외부 친구관계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시설 내부 친구관계는 시설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개념으로, 주양육자인 생활지도원의 보호와 양육하에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의 형제자매와 유사하게 여겨진다(정선욱, 2006). 원가족과의 소원한 관계, 시설 생활지도원의 잦은 교체 등 변화하는 시설 환경 내에서 생활하는 시설보호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친구관계는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다(Farineau et al., 2013). 또한 시설 내부 친구와의 애착은 시설보호청소년의 자립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며, 퇴소 이후 자립 과정에서도 시설 내 친구가 좋은 지지 체계로 작용한다고 조사되었다(박신애, 최옥채, 2018). 그러나 동시에 시설 내부 친구관계는 다양한 연령층의 개인이 인위적으로 모여 만들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선후배라는 엄격한 서열 관계와 훈육이 자연스럽게 여겨지기도 한다(정선욱, 2006). 실제로 시설 또래와 학교 또래로 구분하여 시설보호아동의 적응까지의 경로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시설에 함께 사는 또래와 학교 또래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에도 차이가 나타났다(강명진, 2010).

반면에, 시설 외부 친구관계는 주로 학교나 학원 등에서 만난 친구를 의미하며, 일반 가정 청소년의 또래 체계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김현진, 2017; 정선욱, 2006). 위계적이고 권력 차이가 있는 부모자녀 관계와 달리 또래는 수평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협력적인 성향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경우 또래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노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Giordano, 2003). 실제로 또래는 시설보호청소년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개인의 내외적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권기남, 유안진, 민하영, 2002). 한편 시설 외부 친구관계가 시설보호청소년에게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며, 외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시설보호청소년은 낙인 찍히거나 소외되기도 더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Farineau et al., 2013). 즉, 시설보호청소년의 경우 또래 친구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모두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다(Farineau et al., 2013). 정리하자면, 기존 연구를 통해 시설 외부에서 형성된 친구관계와 시설 내부에서 함께 지내는 친구관계는 개인의 발달이나 적응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구분되는 관계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중 시설보호청소년이 경험한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가 소외감에 미친 영향을 예측해보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시설보호청소년의 시설 내부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증가하였다. 이는 외부 친구관계의 공백을 완화하고 고립감과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 반면에, 무너진 일상 속 시설 내부 친구 간의 부딪힘과 일상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예민해져 싸우는 횟수도 늘어남을 의미하였다(장혜림 외, 2021). 즉, 시설 내 친구관계는 코로나19 시기에도 시설보호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모두 주고받는 관계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형제자매 관계는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고립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형제자매의 지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Dantchev & Zemp, 2021; East & Rook, 1992). 이를 통해 시설 내부 친구관계가 코로나19 시기 시설보호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 특히 소외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친구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이고 상호작용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시기라는 점에서(Steinberg & Morris, 2001), 시설 외부 친구관계를 통해 자아정체성이나 자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또래관계 기회 부족이나 부정적인 경험은 소외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문진명, 2000; Hall-Lande et al., 2007). 즉,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 모두 코로나19 시기 시설보호청소년의 소외감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이라 추정할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나타난 일상 경험이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를 통해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형제자매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보이면 형제 간의 공격성이 증가하고 어머니의 부정적 환경 경험은 형제자매 간의 적대감을 높였다(Tippett & Wolke, 2015). 코로나19 시기 생활지도원의 심리적 소진으로 부정적 양육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시기 생활지도원의 지지 부족이 시설 내부 친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김재희, 심미승, 2022). 또한 형제자매 간의 관계와 애정은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사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는 점에서(Gass, Jenkins, & Dunn, 2007), 시설보호청소년이 겪은 외출과 신체활동 시간 감소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 시설 내부 친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코로나19 시기 나타난 시설보호청소년의 일상이 시설 내부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소외감에 영향을 미친다(Rudolph et al., 2014)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시설보호청소년이 코로나19 시기 시설 외부 친구와의 만남이나 관계 유지가 어려웠던 것은 코로나19 시기 변화된 시설보호청소년의 일상으로 인한 두드러진 결과이기에 코로나19 시기 일상이 시설 외부 친구관계를 매개로 소외감에 영향을 미침을 예측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긴급히 마련된 코로나19 대응으로 아동양육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시설보호청소년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한 상황에 주목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에 취약할 수 있는 시설보호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실태조사가 대부분이며 시설보호청소년의 환경과 사회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커니즘을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코로나19 시기 일상에서 변화되었을 업무 과중으로 인한 생활지도원의 지지, 외출 시간, 신체활동에 대한 시설보호청소년의 만족도가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의 변화를 통해 소외감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시설보호청소년의 결손 회복을 위한 방안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시기 시설보호청소년이 경험한 생활지도원의 지지, 외출 시간, 신체활동 시간에 대한 만족도,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가 소외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2. 코로나19 시기 시설보호청소년이 경험한 생활지도원의 지지, 외출 시간, 신체활동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시설 내부 친구관계를 통해 소외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3. 코로나19 시기 시설보호청소년이 경험한 생활지도원의 지지, 외출 시간, 신체활동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시설 외부 친구관계를 통해 소외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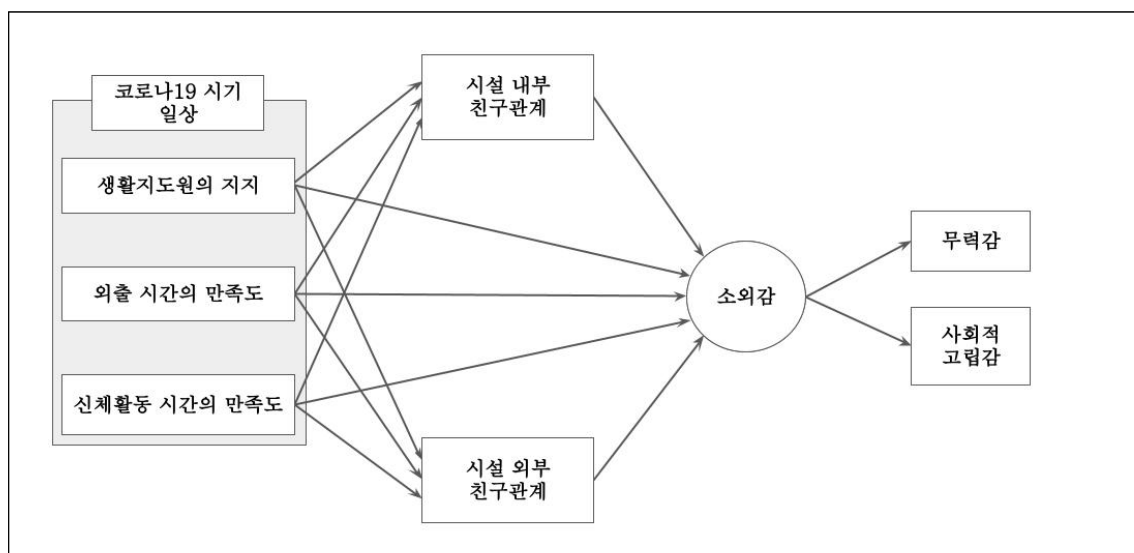


그림 1. 코로나19 시기 일상이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를 매개로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

II.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주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보호대상아동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시의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된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수요조사’ 데이터의 일부를 2차 자료로 사용하였다. 원 조사는 서울특별시 소재의 34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 및 청소년 680명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1달간의 자기보고식 조사와 시설의 공식 기록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는 34개의 시설 중 영유아만 거주하는 시설, 아동의 자기보고 설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시설, 시설 공식 기록이 부재한 시설을 제외한 총 31개 시설에 소속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439명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인원을 제외한 371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중학생 110명(29.6%)과 고등학생 261명(70.4%)을 포함하며, 183명(49.3%)의 남학생과 188명(50.7%)의 여학생으로 균형적인 성비를 보였다. 연구대상 학생의 시설 입소 기간 평균은 8.8년이었으며, 1년 미만부터 18년 이상까지의 분포가 나타났다. 시설 입소 이유로는 학대(108명, 29.1%), 유기(102명, 27.5%)가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의 23%는 심리상담 치료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팬데믹 중 시설별 외출 금지 기간(등교 제외)은 코로나19 시작 이후 평균 180.71시간($SD=227.53$ 시간, range=0~651)으로 나타났다.

2. 측정 변인

1) 독립 변인: 생활지도원의 지지, 외출 시간, 신체활동 시간의 만족도

시설보호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소외감에 영향을 미칠 코로나19 시기 일상 변인 중 첫 번째인 생활지도원의 지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생활지도원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고 생각하나요?’와 ‘코로나19 발생 이후, 생활지도원 선생님께서 필요할 때 도움이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2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시설보호청소년의 자기 평정으로 조사되었다. 두 문항은 .69($p<.01$)로 높은 상관이 나타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시설보호청소년이 인식한 생활지도원의 지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일상 변인 중 두 번째 변인인 외출 시간의 만족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등교를 제외한 외출 시간에 대해 만족하나요?’라는 1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본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5점)로 시설 보호청소년의 자기 평정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 일상 변인 중 마지막 변인인 신체활동 시간의 만족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교 체육시간을 제외한 신체활동 시간에 대해 만족하나요?’라는 1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5점)로 시설보호청소년의 자기 평정으로 조사되었다.

2) 매개 변인: 시설 내부 친구관계, 시설 외부 친구관계

코로나19 시기 일상이 시설보호청소년의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의 첫 번째 매개 변인인 시설 내부 친구관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에서 함께 지내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나요?’라는 1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본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집에서 함께 지내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아졌다(1점)’에서 ‘집에서 함께 지내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졌다(5점)’로 평정되었다. 코로나19 시기 일상이 시설보호청소년의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의 두 번째 매개 변인인 시설 외부 친구관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부 친구들(학교, 학원, 동네친구 등)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나요?’라는 1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본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외부 친구들과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아졌다(1점)’에서 ‘외부 친구들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졌다(5점)’로 평정되었다. 두 변인 모두 평정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시기 친구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3) 종속 변인: 소외감

본 연구의 종속 변인 소외감은 Dean(1961)이 개발한 소외감 척도(Dean's Alienation Scale)를 문진명(2000)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변안하고 한영신(2002)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이 중 무력감(6개 문항)과 사회적 고립감(7개 문항)을 포함하는 총 13문항으로 소외감을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시로는 무력감의 경우 ‘나에게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 사회적 고립감의 경우 ‘나는 때때로 세상에서 아주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시설보호청소년의 자기 평정으로 조사되었고, 각 하위영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무력감의 경우 자신에게보다는 외부의 힘이나 운명 등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남을 의미하고, 사회적 고립감은 개인이 집단으로부터 고립되거나 분리되었다고 믿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무력감과 사회적 고립감의 문항 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91과 .92이었다.

4) 통제 변인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호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특징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유안진, 민하영, 권기남, 2001)와, 시설보호청소년 특성상 학대나 적응의 어려움으로 심리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19 시기 시설에 따라 외출 금지 상황이 달랐다는 점(김현경 외, 2021) 등을 고려하여, 시설 공식 기록을 통해 조사된 시설보호청소년의 성별, 현재 심리치료 유무와 시설별 외출 금지 기간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시설보호청소년의 성별은 남자는 '0', 여자는 '1'로, 현재 심리치료 유무는 '심리치료를 받고 있지 않음'은 '0'으로 '현재 심리치료 중'은 '1'로 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외출 금지 기간은 조사일 기준으로 '일' 단위로 처리하여 연속변수(0~651일)로 포함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6.0을 사용하여 기초 분석을 진행하였고, 코로나19 시기 시설보호청소년이 인지한 생활지도원의 지지, 외출 시간 및 신체활동 시간 등 일상에 대한 만족도와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가 소외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및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를 각각 매개로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Mplus 8.6(Muthén & Muthén, 1998-2017)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는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보호청소년의 성별, 현재 심리치료 유무, 시설별 외출 금지 기간을 통제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χ^2 값,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Lewis Index(TLI), 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그리고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SRMR)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통해 독립 변인이 매개 변인을 거쳐서 종속 변인으로 이어지는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1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N=371)

주요 변인	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생활지도원의 지지	1~5	3.78	0.84	-.17	-.35
외출 시간의 만족도	1~5	2.24	1.21	.67	-.45
신체활동 시간의 만족도	1~5	3.15	1.00	-.07	.13
시설 내부 친구 관계	1~5	3.10	0.70	.39	3.10
시설 외부 친구 관계	1~5	2.91	0.68	.26	3.34
무력감	1~5	2.11	0.89	.50	-.23
사회적 고립감	1~5	2.13	0.96	.43	-.64
성별 (여)	0~1	51%			
현재 심리치료 중	0~1	23%			
외출 금지 기간 (일)	0~651	180.71	227.53	.95	-.72

주요 변인 간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생활지도원의 지지는 시설 내부 친구관계($r=.19, p<.01$)와 시설 외부 친구관계($r=.14, p<.01$)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가졌고, 무력감($r=-.30, p<.01$)과 사회적 고립감($r=-.22, p<.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졌다. 외출 시간의 만족도는 시설 외부 친구관계($r=.29, p<.01$)와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무력감($r=-.18, p<.01$)과 사회적 고립감($r=-.19,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신체활동 시간의 만족도는 시설 내부 친구관계($r=.21, p<.01$)와 더불어 시설 외부 친구관계($r=.24, p<.01$)와도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신체활동 시간의 만족도는 무력감($r=-.24, p<.01$)과 사회적 고립감($r=-.21, p<.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주요 변수 간 적률상관관계

(N=371)

	1.	2.	3.	4.	5.	6.	7.	8.	9.	10.
1.	1.00									
2.	.14**	1.00								
3.	.28**	.14**	1.00							
4.	.19**	.09	.21**	1.00						
5.	.14**	.29**	.24**	.17**	1.00					
6.	-.30**	-.18**	-.24**	-.25**	-.21**	1.00				
7.	-.22**	-.19**	-.21**	-.24**	-.25**	.83**	1.00			
8.	-.00	-.19**	-.12*	-.05	-.04	.09	.14*	1.00		
9.	.10*	-.03	-.05	-.09	-.06	.14**	.23**	.10	1.00	
10.	.11*	-.09	-.02	.02	-.03	-.07	-.04	-.06	-.03	1.00

** $p<.01$, * $p<.05$ / 1=생활지도원의 지지, 2=외출 시간의 만족도, 3=신체활동 시간의 만족도, 4=시설 내부친구 관계, 5=시설 외부 친구관계, 6=무력감, 7=사회적 고립감, 8=성별(여), 9=현재 심리치료 중, 10=외출 금지 기간

2. 구조모형

시설보호청소년의 성별, 현재 심리치료 유무, 외출 금지 기간을 통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중 경험한 시설보호청소년의 일상(생활지도원의 지지, 외출시간 및 신체활동 시간의 만족도)이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를 통해 소외감에 미치는 매커니즘을 조사하는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수치는 $\chi^2(13)=25.92(p<.05)$, CFI와 TLI는 각각 0.98과 0.95, RMSEA는 .05, SRMSR은 .03으로 나타나 좋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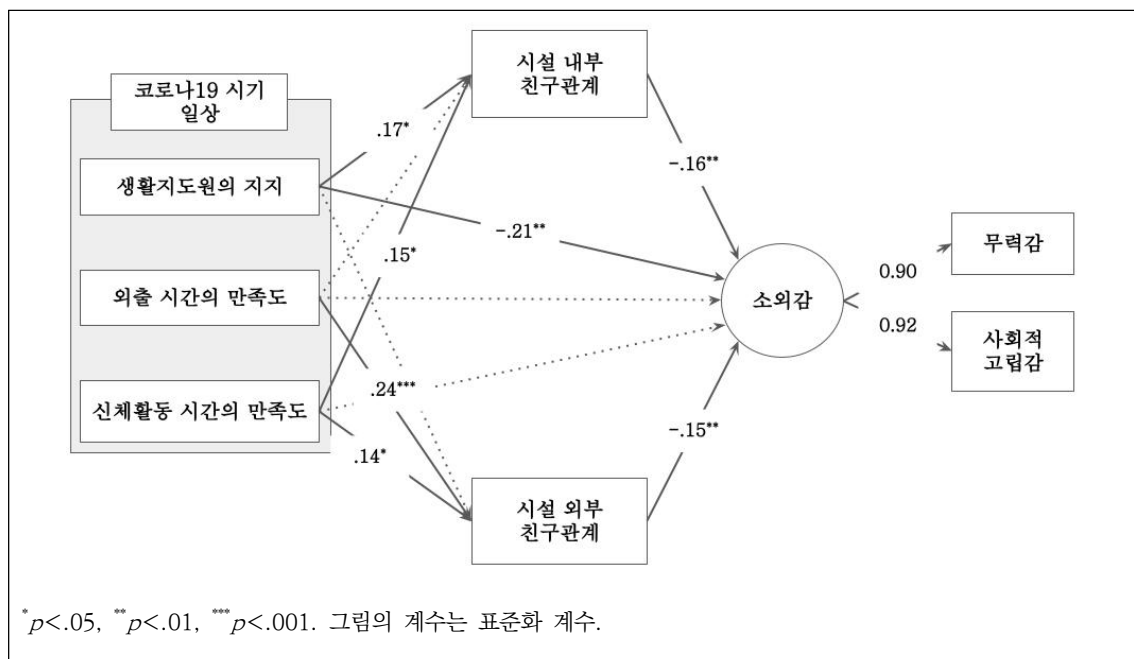


그림 2. 코로나19 시기 일상이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와 소외감에 미치는 효과

그림 2에 나타난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보호청소년이 생활지도원으로부터 받은 지지의 직접적인 영향은 시설 내부 친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beta=.17, p<.05$)을, 그리고 종속변인인 소외감($\beta=-.21, p<.01$)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 시간의 만족도의 경우 시설 내부 친구관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설 외부 친구관계에 미치는 직접 영향($\beta=.24, p<.001$)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설 보호청소년의 신체활동 시간의 만족도는 시설 내부 친구관계($\beta=.15, p<.05$)와 시설 외부 친구관계($\beta=.14, p<.05$) 모두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매개 변인인 시설 내부 친구관계($\beta=-.16, p<.01$)와 시설 외부 친구관계($\beta=-.15, p<.01$)가 종속 변인인 소외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직접 경로를 토대로 나타난 간접 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확인하였다. 시설보호청소년이 인지한 높은 수준의 생활지도원의 지지는 시설 내부친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소외감 수준을 감소시키는 매개효과가 나타났다(β for indirect=-.02, 95% C.I.=[-.048, -.003]). 외출 시간에 대한 높은 수준의 만족도는 시설 외부 친구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소외감 수준을 감소시키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β for indirect=-.03, 95% C.I.=[-.068, -.007]). 마지막으로 높은 수준의 신체활동 시간의 만족도는 내부 친구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소외감을 감소시키는 매개효과로 이어졌다(β for indirect=-.03, 95% C.I.=[-.060, -.003]). 이러한 결과는 통제 변인인 시설 보호청소년의 성별과 심리치료 유무, 외출 금지 기간과 관계없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3
시설보호청소년의 소외감에 대한 매개 경로

(N=371)

매개효과 경로					β	95% C.I.	
						Lower	Upper
생활지도원의 지지	→	내부 친구관계	→	소외감	-.02	-.048	-.003
외출 시간의 만족도	→	외부 친구관계	→	소외감	-.03	-.068	-.007
신체활동 시간의 만족도	→	내부 친구관계	→	소외감	-.03	-.060	-.003

IV. 결론 및 논의

코로나19 시기 시설보호청소년이 경험한 생활지도원의 지지, 외출, 신체활동 등 일상에 대한 만족감이 소외감에 미친 영향은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에 따라 다른 경로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결과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코로나19 시기를 경험한 시설보호청소년의 소외감은 생활지도원의 지지와 시설보호청소년의 시설 내·외부 친구관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낮은 생활지도원의 지지는 시설보호청소년의 소외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변에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기존 연구와도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Gable & Bedrov, 2022). 다음으로, 생활지도원의 지지와 유사하게 시설보호청소년이 인식하는 코로나19 시기 시설 내·외부 친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소외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보호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에 있어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함을 시사하며, 또래의 지지가 시설보호청소년의 공격성

감소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기존 연구(유안진, 한유진, 최나야, 2002)와 유사한 결과이다. 결국 시설보호청소년은 원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원이나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 등 원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의 지지 경험이 시설보호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박영준, 2012).

한편, 시설보호청소년이 평가한 높은 수준의 생활지도원의 지지는 소외감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설 내부 친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소외감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아동양육시설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련 연구(김형태, 이수천, 전준현, 방미진, 2012)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룹홈 생활에 있어 생활교사가 거주 청소년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그룹홈 내 함께 거주하는 또래 청소년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교사가 그룹홈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그룹홈 내 친구관계를 통해 나타난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김형태 외, 2012). 성인과의 개별적 상호작용과 지지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Pianta, 1997), 현재 보육 및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대규모 아동양육시설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는 경우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기에 아동의 긍정적인 지지 경험이 부족하고 원가정 복귀가 지연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임성은, 2020). 실제로 서대문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의 소규모 가정형 전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윤보람, 2022). 즉,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시설보호청소년이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제관계와 유사한 생활지도원과 시설 내부 또래 관계를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신체활동 시간에 대한 만족감이 소외감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시설 내부 친구관계를 매개로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기존 연구에서 청소년에게 있어서 신체활동은 일상의 걱정이나 우울로부터 주의를 환기하는 역할을 하는 등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 기반이 되는 정서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leser & Mendelberg, 1990). 즉, 코로나19 시기 사회활동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체활동 시간에 만족한 시설보호청소년은 시설 내부 또래와 접촉 및 상호작용할 기회가 있었기에 이를 통해 소외감에까지 그 영향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스포츠 게임이나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한 아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 비해 사회적 유능감이 높아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 내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Howie, Lukacs, Pastor, Reuban, & Mendola, 2010). 또한, 본 연구결과는 가정의 소득, 부모의 교육 수준, 인종 등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관계없이 신체활동의 참여가 친구관계 형성을 돕는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사회적 두려움, 사회적 고립감을 감소시키

며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에서의 존중감 등이 증가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살 위험을 낮추는 등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다(Eime, Young, Harvey, Charity & Payne, 2013). 특히, 러시아의 시설보호청소년이 7개월 간 축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입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우울함, 무기력함, 소외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감소하였으며, 조화로운 심리 발달이 촉진된 것으로 나타났다(Akhmetshin et al., 2019). 이는 양육시설 내의 한정된 공간을 다수의 또래 아동과 공유해야 하는 시설보호청소년에게 시설 내부 친구와 함께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지원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시설보호청소년에게 사회적 교류를 증진하고 협력의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는 운동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혹은 사회적 역량을 고취시킬 수 있는 학습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개입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시설보호청소년의 외출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시설 외부 친구관계를 매개로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적 외출이 소외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시설 외부 친구관계를 매개로 한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결과는 코로나19 시기 시설보호청소년의 외출 제한이 시설 외부 친구관계의 부정적 변화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시설보호청소년의 소외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설보호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그들의 관심과 선호를 바탕으로 한 자유시간과 외부 활동 제공이며, 자발적으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 시설보호청소년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Pantiukhina, 2009). 또한 이와 같은 자유시간 동안 또래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많이 이루어지기에 외로움, 무력감, 사회적 고립감과 같은 취약한 심리·정서를 보이는 시설보호청소년의 경우 외부 친구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외출 시간과 자유시간 확보 및 해당 시간에 대한 자율성과 존중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Waytz와 Gray(2018)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대면 상호작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사회성과 인간 관계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비대면 온라인 상호작용이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온라인에서 관계를 맺고 이를 유지하는 경험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비대면 상호작용에서는 생활지도원의 적절한 지원이 요구되고 생활지도원의 교육이나 훈련 없이는 역효과가 날 수 있기에(Singer & Brodzinsky, 2020), 시설보호청소년의 외부활동을 존중하되 적절한 지원과 지도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종합해보면, 소외감에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설보호청소년에게 중요한 보호요인은 시설 내·외부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이고, 시설 내부 친구관계는 생활지도원의 지지나 신체활동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하며, 시설 외부 친구관계는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외출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한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조사된 시기인 코로나19 팬데믹에 초점을 두어 해당 매커니즘의 시사점을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과 유사한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지침의 보완 및 수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특별 보호가 필요하고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지는 재난 시기에는 시설보호청소년에 대한 생활지도원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전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없는 재난상황에서 보호시설의 세부적인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침의 부재로 기관 운영의 고충이 발생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경험 중 생활지도원의 지지가 시설보호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추후 코로나19 팬데믹과 유사한 재난상황을 대비한 대응지침 매뉴얼을 정비하고, 인력풀을 확보하여 비상시 생활지도원 및 프로그램 운영 임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비상시 필요한 지원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유사한 맥락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중 외출시간에 대한 만족감이 친구관계와 소외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일시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시설보호청소년의 신체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실제로 재난상황에서 취약한 청소년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대학이나 기업이 보유한 기숙사나 호텔 등을 사용하는 방안이 국외에서 제안된 바가 있다(Silliman Cohen & Bosk, 2020). 이는 코로나19와 유사한 다른 재난상황에서도 시설보호청소년이 창의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의 두 번째 시사점은 포스트 코로나19 팬데믹에서의 결손회복 노력을 위한 방향성이다. 소외감이 외로움과 달리 회복이 더디다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Bekhet, Zauszniewski, & Nakhla, 2008)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시기 시설보호청소년의 친구관계가 소외감에 준 부정적인 영향을 적절한 개입을 통해 회복하지 못할 시, 보호 종료 이후 자립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고 보호 종료를 앞둔 시설보호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외감 회복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를 돕는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사례 관리가 코로나19 시기를 겪고 자립을 앞둔 시설보호청소년의 개별 욕구에 맞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원해진 외부 친구관계 회복을 위해 관계 강화 개입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방법이 될 수 있다(윤세리, 2022). 기존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청소년은 긍정적인 친구관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Smith, Faulk, & Sizer, 2016). 또래들과 함께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프로그램에 시설보호청소년이 적극적인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결감을 확보하고 시설 외부 친구관계와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장기적인 접근 방안으로는 친구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한 시설보호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 중재

프로그램의 제공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근거기반 방법을 통해 개발 및 효과성 검증이 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훈련된 전문가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을 가지며,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시설의 공식적인 기록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횡단적 연구로 한 시점에서만 수집된 자기 보고식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 시설보호 청소년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거나 종단적인 변화 과정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하다. 둘째, 본 연구는 시설보호청소년의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친구관계를 중심으로 다루었고 시설보호청소년의 주요 미시체계 중 하나인 원가족의 영향(예: 원가족과의 관계나 연락 여부)까지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이전 시설보호청소년의 소외감을 통제한 후, 원가족과의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조사하여 원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관계의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해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앞서 언급된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경험한 시설보호청소년의 적응을 양적으로 조사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내의 시설보호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코로나19 이후 시설보호청소년이 경험한 결손을 회복하는 과정과 이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입의 방향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일반 가정 청소년과 다른 시설보호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의 특징을 고려하여 시설 내부와 외부 친구 관계를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시설보호청소년이 경험하기 쉬운 어려움인 사회적 고립감과 무력감 등 소외감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지침으로 시설보호청소년이 고립되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매커니즘을 조사한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접촉이 증가된 시설 내부 친구관계와 접촉이 감소된 시설 외부 친구관계를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시설보호청소년의 연구와 개입에 있어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즉,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상황에 대한 아동양육시설 대응지침 매뉴얼 마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고, 코로나19에 의한 시설보호청소년의 결손 회복에 대한 개입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명진 (2010). 시설청소년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체계적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완숙 (2000). 지각된 부와 모의 가치, 부/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및 부/모의 과잉통제와 대학생의 소외감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경향신문 (2021.07.21). “보호시설 아동, 외출·외박 제한에 취업 준비도 못해”...복지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손발 묶인 아이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210600001>에서 2023년 2월 21일 인출.
- 권기남, 유안진, 민하영 (2002). 시설보호 아동이 지각한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와 내적 통제 성향 및 학교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0(5), 109-118.
- 김윤정, 김성은, 김탁, 윤기욱, 이소희, 이은정, 서준원, 정영희, 정용필 (2022). 만성 코로나19 증후군(Long COVID) 진료지침 예비 권고안. **Infection and Chemotherapy**, 54(3), 566-597.
- 김재희, 심미승 (2022).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사회복지사의 소진 극복경험. **청소년학연구**, 29(8), 293-316. doi:10.21509/KJYS.2022.08.29.8.293
- 김현경, 김재희, 최지은, 이지혜 (2021).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수요조사**. 서울특별시.
- 김현진 (2017). 시설보호아동이 지각한 심리적 양육환경이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시설 또래 애착과 학교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형모 (2020). 코로나19와 아동복지시설.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21-335.
- 김형태, 이수천, 전준현, 방미진 (2012). 그룹홈 아동· 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그룹홈 가족 요인. **학교사회복지**, 22, 1-22.
- 김희용, 진재찬, 유서구 (2022). 시설보호아동의 퇴소 스트레스에 종사자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50(3), 5-27. doi:10.24301/MHSW.2022.09.50.3.5
- 동아사이언스 (2022.7.8).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피로감, 피병 아닌 질병.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55288>에서 2023년 2월 20일 인출.
- 문진명 (2000). 시설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또래피해지각에 따른 또래따돌림귀인 및 소외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신애, 최옥채 (2018).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 경험. **사회과학연구**, 34(2), 127-153. doi: 10.18859/ssrr.2018.05.34.2.127
- 박영준 (2012). 시설아동 원가족과의 여가 만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6(1), 61-84.

- 서울신문 (2021.12.27). 감염 취약하다고 외출 금지...두 번 상처받는 시설 아동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28009012>에서 2023년 2월 20일 인출.
- 손영준, 허만섭 (2020). 코로나 19 확산후 소셜미디어 이용과 무력감· 외로움 체감에 관한 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1(11), 1957-1971. doi: 10.9728/dcs.2020.21.11.1957
- 안은미, 안영미, 정익중 (202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 코로나 19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0(2), 499-525. doi:10.22418/JSS.2021.8.60.2.499
- 엄지연, 홍은정 (2020).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의 가정 내 돌봄과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작은연구 좋은서울 20-02). 서울: 서울연구원.
- 여성가족부, 통계청. (2021). **2021 청소년 통계**. 여성가족부.
- 연합뉴스 (2022.08.24.). 서대문구, 구세군과 '가정형 아동양육시설' 시범사업. [https:// www.yna.co.kr/view/AKR20220824064100004](https://www.yna.co.kr/view/AKR20220824064100004)에서 2023년 2월 23일 인출.
- 유안진, 민하영, 권기남 (2001).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심리 사회적 적응: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3), 135-149.
- 유안진, 한유진, 최나야 (2002). 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지각과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3), 67-82.
- 유호석 (2018). **시설보호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숙 (2002).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생각에 관한 구조모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성은 (2020). 보호대상아동의 특성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의 방향성. **보건·복지 이슈애포커스**, 394, 1-12. doi:10.23064/2020.11.394
- 장혜림, 김시아, 김선숙, 김희주, 정정호 (2021). 코로나19 시기,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삶에 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28(9), 171-199. doi:10.21509/KJYS.2021.09.28.9.171
- 정선욱 (2006). 시설보호 아동의 보육사 관계 경험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1), 115-145.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3.3.17.). 지난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 살펴보니.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9952>에서 2023년 2월 23일 인출.
- 주해란, 김한나, 이예진, 황소연, 안태구 (2022). 코로나-19 (COVID-19) 상황에서 아동양육시설의 변화와 생활지도원의 정서적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9(8), 187-218. doi:10.21509/KJYS.2022.08.29.8.187
- 한영신 (2003). **아버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소외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성호 (2005). **시설청소년과 생활지도원의 의사소통 유형이 시설청소년의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남지역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khmetshin, E. M., Miftakhov, A. F., Murtazina, D. A., Sofronov, R. P., Solovieva, N. M., & Blinov, V. A. (2019). Effectiveness of using football basics in physical education and organizing arts and cultural events for promoting harmonious development of orphan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Instruction*, 12(1), 539-554. doi:10.29333/iji.2019.12135a
- Bekhet, A. K., Zauszniewski, J. A., & Nakhla, W. E. (2008). Loneliness: A concept analysis. *Nursing Forum*, 43(4), 207-213. doi:10.1111/j.1744-6198.2008.00114.x
- Dantchev, S., & Zemp, M. (2021). Sibling, peer, and cyber bullying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Co-occurrence and implications for their adjustment. *Frontiers in Psychology*, 12, 1-14. doi:10.3389/fpsyg.2021.761276
- Dean, D. G. (1961). Alienation: Its meaning and measur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6(5), 753-758. doi:10.2307/2090204
- East, P. L., & Rook, K. S. (1992). Compensatory patterns of support among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A test using school friends, nonschool friends, and siblings. *Developmental Psychology*, 28(1), 163-172. doi:10.1037/0012-1649.28.1.163
- Eime, R. M., Young, J. A., Harvey, J. T., Charity, M. J., & Payne, W. R. (2013). A systemic review of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benefits of participation in spor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forming development of a conceptual model of health through s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10, 98. doi:10.1186/1479-5868-10-98
- Farineau, J. M., Wojciak, A. S., & McWey, I. M. (2013). You matter to me: Important relationship self-esteem of adolescents in foster care. *Child & Family Social Work*, 18(2), 129-138. doi:10.1111/j.1365-2206.2011.00808.x
- Gable, S. L., & Bedrov, A. (2022). Social isolation and social support in good times and bad time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44, 89-93. doi:10.1016/j.copsyc.2021.08.027
- Ganesan, B., Al-Jumaily, A., Fong, K. N., Prasad, P., Meena, S. K., & Tong, R. K. Y. (2021). Impact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outbreak quarantine, isolation, and lockdown policies on mental health and suicide. *Frontiers in Psychiatry*, 12, 1-12. doi:10.3389/fpsyt.2021.565190
- Gass, K., Jenkins, J., & Dunn, J. (2007). Are sibling relationships protectiv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8, 167-175. doi:10.1111/j.1469-7610.2006.01699.x

- Giordano, P. C. (2003).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9(1), 257-281. doi:10.1146/annurev.soc.29.010202.100047
- Gleser, J., & Mendelberg, H. (1990). Exercise and sport in mental health: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Israel Journal of Psychiatry and Related Sciences*, 27(2), 99-112.
- Hall-Lande, J. A., Eisenberg, M. E., Christenson, S. L., & Neumark-Sztainer, D. (2007). Social isolation, psychological health, and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ce. *Adolescence*, 42(166), 265-286.
- Hedin, L., Höjer, I. & Brunnberg, E. (2011). Why one goes to school: What school means to young people entering foster care. *Child & Family Social Work*, 16, 43-51. doi:10.1111/j.1365-2206.2010.00706.x
- Howie, L., Lukacs, S., Pastor, P., Reuban, C., & Mendola, P. (2010). Participation in activities outside of school hours in relation to problem behavior and social skill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School Health*, 80(3), 119-125. doi:j.1746-1561.2009.00475.x
- Lacourse, E., Villeneuve, M., & Claes, M. (2003). Theoretical structure of adolescent alienation: A multi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dolescence*, 38(152), 639-650.
- Lazarus, R. S. (1991). Cognition and motivation in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6(4), 352-367. doi:10.1037/0003-066X.46.4.352
- Loades, M. E., Chatburn, E., Higson-Sweeney, N., Reynolds, S., Shafran, R., Brigden, A., Linney, C., McManus, M. N., Borwick, C., & Crawley, E. (2020). Rapid systematic review: The impact of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on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he context of COVID-19.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59(11), 1218-1239. doi:10.1016/j.jaac.2020.05.009
- Moore, S. A., Faulkner, G., Rhodes, R. E., Brussoni, M., Chulak-Bozzer, T., Ferguson, L. J., Mitra, R., O'Reilly, N., Spence, J. C., Vanderloo, L. M., & Tremblay, M. S. (2020). Impact of the COVID-19 virus outbreak on movement and play behaviours of Canadian children and youth: A national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17(85), 1-11. doi:10.1186/s12966-020-00987-8

- Pancani, L., Marinucci, M., Aureli, N., & Riva, P. (2021). Forced social isolation and mental health: A study on 1,006 Italians under COVID-19 lockdown. *Frontiers in Psychology, 12*, 1-10. doi:10.3389/fpsyg.2021.663799
- Pantiukhina, E. N. (2009). The social and pedagogical protection of orphans in Russia. *Russian Education & Society, 51*(9), 40-50. doi:10.2753/RES1060-9393510904
- Pianta, R. C. (1997). Adult-child relationship processes and early schooling.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8*(1), 11-26. doi:10.1207/s15566935eed0801_2
- Rudolph, K. D., Lansford, J. E., Agoston, A. M., Sugimura, N., Schwartz, D., Dodge, K. A., et al. (2014). Peer victimization and social alienation: Predicting deviant peer affiliation in middle school. *Child Development, 85*(1), 124-139. doi:10.1111/cdev.12112
- Seeman, M. (1959). On the meaning of alie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4*(6), 783-791. doi:10.2307/2088565
- Silliman Cohen, R. I., & Bosk, E. A. (2020). Vulnerable youth and the COVID-19 pandemic. *Pediatrics, 146*(1), e20201306. doi:10.1542/peds.2020-1306
- Singer, J., & Brodzinsky, D. (2020). Virtual parent-child visitation in support of family reunification in the time of COVID-19. *Developmental Child Welfare, 2*(3), 153-171. doi:10.1177/2516103220960154
- Smith, E. P., Faulk, M., & Sizer, M. A. (2016). Exploring the meso-system: The roles of community, family, and peers in adolescent delinquency and positive youth development. *Youth & Society, 48*(3), 318-343. doi:10.1177/0044118X13491581
- Steinberg, L., & Morris, A. S. (2001).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83-110. doi:10.1146/annurev.psych.52.1.83
- Tippett, N., & Wolke, D. (2015). Aggression between siblings: Associations with the home environment and peer bullying. *Aggressive Behavior, 41*(1), 14-24. doi:10.1002/ab.21557
- UN Sustainable Development Group (2020, May 14). COVID-19 pandemic exposes global 'frailties and inequalities'. Retrieved April 19, 2023, from <https://unsdg.un.org/latest/stories/covid-19-pandemic-exposes-global-frailties-and-inequalities>
- Voorhees, C. C., Murray, D., Welk, G., Birnbaum, A., Ribisl, K. M., Johnson, C. C., et al. (2005). The Role of Peer Social Network Factors and Physical Activity in Adolescent Girls.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29*(2), 183-190. doi:10.5993/AJHB.29.2.9

Waytz, A., & Gray, K. (2018). Does online technology make us more or less sociable? A preliminary review and call for research.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3(4), 473-491. doi:10.1177/1745691617746509

ABSTRACT

The associations between daily life and a perceived sense of alienation among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an, Jisoo*·Kim, Jaehee **·Lee, Jihye***·Lee, Hyojung ****·Kim, Hyoun K. *****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the associations between daily life and a perceived sense of isolation among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ith the role of peer relationships within or outside the facilities. Caregivers' support, outings, and physical activity represented the daily life in COVID-19 of adolescents in facilities. The sample included 371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in Seou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nd bootstrapping techniques were applied to test the hypothesized mediating effects, utilizing SPSS 26.0 and Mplus 8.6 programs. The respondents' genders, whether they were receiving psychotherapy, and the period being restricted from going on outings during COVID-19 were controlled for in the analysis. This study highlights that interventions to support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during COVID-19 need to focus on their peer relationships within or outside facilities.

Key Words: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a perceived sense of alienation, peer relationships within facilities, peer relationships outside facilities

* Department of Child&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M.A.

** Research Institute of Future City and Society, Yonsei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 Department of Child&Family Studies/Human Life & Innovation Design, Yonsei University, Ph.D. Candidate

**** Department of Child&Family Studies/Human Life Innovation Design, Yonsei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Department of Child&Family Studies/Human Life Innovation Design, Yonsei University, Professor